



3면

전국 교사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음 7월 20일) 제333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반딧불 퍼포먼스'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2일, 무주군 등니무운동장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반딧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연특별시로 힐링여행 떠나볼까?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개막... 10일까지 진행

반디 입장식 · 주제공연 · 남대천 빛의 향연 등 다채

환경탐사 · 체험 · 판매 ·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일회용품 · 바가지요금 · 안전사고 없는 '3無' 내걸어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일 무주읍 등니무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30분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등봉시 소림무술단 시범과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반디 입장식과 개막식, 남대천 반디 빛의 향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청에서 등니무운동장(개막식장)까지 이어진 반디 입장식은 무주군기와 축제 피켓, 반딧불이 캐릭터 '또

리와 아로'를 선두로 무주군 6개 읍·면 주민들과 무주가족센터 농악팀 그리고 무주군 향우회 회원 등 3백여 명이 생기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세균 전 국회의원(현 사립시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도내 자치단체장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전북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축제로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며 "반딧불이가 일깨워주는 환경의 소중함과 무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주 반딧불축제가 전하는 흥과 재미를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고 온전히 대면하게 된 올해 축제는 어느 해보다도 만족스러운 축제로 즐기실 수 있도록 일회용품 · 바가지요금 · 안전사고 없는 3무(無)축제로 채웠다"며 "무주반딧불축제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보람 부담 없이 즐기는 재미, 건강까지 챙기는 기쁨을 누리 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된 주제공연은 반딧불이를 통해 무주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일렁인다"는 내용으로 '태초의 지구, 창조와 번성',

'발전과 대립, '회합의 노래', '지구의 미래 무주'를 선보였다. 축하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다. 남대천에서는 별빛 다리를 배경으로 드론쇼와 무주 안성 낙화놀이, 디지털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반디 빛의 향연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남은 여정에 기대를 키웠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대표축제, 그리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으며 2023 전북의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오는 10일까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26개의 체험프로그램과 2개의 전시 프로그램, 15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질서있게·의연하게 임하자"

김관영 도지사, 간부회의서 도정운영 재정비 강조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꺾이지 않는 기세로 도정운영을 재정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경제부지사와 실국장이 힘을 모아 하반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자"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더 질서있게, 하지만 의연하게 도정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국



정감사 내년도 예산안·법률안 등 안건심의를 진행하므로 각급 기관에 산을 국회단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에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중점 특례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실국장과 지휘부 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시작된 팀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왔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2단을 잘 준비해 도정혁신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교권 회복, 한마음으로"

서거석 교육감, 서이초 교사 49재 앞두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연가와 임시휴업(제량휴업)의 해석에 차이가 나타났다"면서 "교사들의 연가가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뜻이라고 이해하지만, 교육부는 연가와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일부 입장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우리 목표는 교권 확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면서 "갈등과 분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9월 4일 이후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실을 지키며 사랑과 희망이 교권 회복의 불씨가 돼 교육 정상화의 꽃을 피우라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25일 교사들의 추모의 마음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교권 회복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무주 제27회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남부관광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문화관광공사 전북관광공사 전북관광재단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